인 사 말 씀

부회장 **김 재 명**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화창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먼저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활기와 번창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제11권 1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체적 실천을 향하여 힘차게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혁명 이후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과연 다음에는 무엇이 등장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IT 혁명 후 도래할 새로운 사회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시공을 초월하여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란 라틴어로 "편재하는(도처에 존재하는)"을 의미하는 단어로 최근 차세대 정보기술이나 정보통신 사회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개념이 실현된 유비쿼터스 사회의 등장이 강력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의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회의 출현에 대비하여 위성 및 우주기술의 새로운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호에서는 새로운 위성서비스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위성 DMB 기술과 무궁화 5호를 준비 중인 한국통신의 무궁화위성 사업, 아태위성 사업 동향과 위성을 활용한 재외동포들의 사이버 교육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위성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통해 새로운 위성 서비스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장차 도래할 새로운 사회에서도 위성과 우주기술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를 통하여 우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기꺼이 수락하고 집필하여 주신 집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2003년 4월